

# 시마네현의 대응

시마네현 대책 본부 결정

시마네현과 전국의 감염 상황, 기본적 대처 방침을 고려하여 현민 및 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이 요청한다.

요청 기간은 2022년 5월 24일부터 당분간으로 한다.

## 1. 도도부현을 넘는 이동

주고쿠·시코쿠 지방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의 불요불급한 이동은, 행선지 도도부현의 요청을 확인 후, 최대한 삼갈 것.

단, 불가피한 업무, 통근·통학, 전근, 취업 활동, 결혼, 장례, 병간호, 통원, 생필품 장보기 등의 이동은, 발열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삼갈 필요는 없지만, 「3 밀(密)」 회피를 포함하여 기본적인 감염 방지 대책을 철저히 할 것.

또한, 현 외부의 가족이나 친척 등이 자택에 체재하는 경우나, 현외의 개인 자택 등에 체재하는 경우에는, 자택 등에서도 가정에서 지킬 수 있는 감염 방지 대책을 철저히 할 것.

## 2. 철저한 기본적인 감염 대책

직장이나 가정에서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 (1) 「3 밀(密)」을 피할 것
- (2) 「사람과 사람과의 거리 확보」
- (3) 「마스크 착용(부직포 마스크를 권장)」
- (4) 「손 씻기, 손가락 소독」
- (5) 「환기」

등, 기본적인 감염 대책을 지킬 것과 함께, 특히 직장에서 '자리 이동'(휴게실, 탈의실, 흡연실 등)에 주의할 것.

## 3. 가정이나 직장 등에서의 건강관리

발열이나 감기 등의 증상이 있는 분은, 업무나 학교는 쉬고, 외출을 삼가고, 신속히 주치의나 「건강상담 콜센터」에 연락한 후, 의료기관의 진찰을 받을 것.

아동·학생의 보호자도 이러한 대응을 철저히 할 것.

각 직장에서도 직원의 컨디션이 좋지 않은 경우, 신속하게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도록 촉구하는 등,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할 것.

## 4. 무료 검사 진찰

감염에 불안을 느끼는 무증상인 분은 검사받을 것. 또한, 이 요청에 대해서는 요청 기간을 6월 30일까지로 한다.

## 5. 음식점 등의 이용

음식점 이용에 대해서 각 점포에서 감염 확대 방지 대책을 철저히 하고, 현민 여러분은 대책을 지키고 있는 점포를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1) 식사 시 인원을 다음과 같이 할 것.

- ① 마쓰에시와 이즈모시의 음식점 등을 이용하는 경우, 8인 이하로 할 것.
- ② 그 외 지역의 음식점 등을 이용하는 경우, 12인 이하로 할 것.

단,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① 및 ②의 인원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가. 동일 테이블의 정면 좌석 사이에 아크릴판 등을 설치하여, 옆좌석과의 거리를 1m 이상

확보, 또는 아크릴판 등을 설치.

나. 테이블이 따로 있어도 사람 간의 거리를 1m 이상 확보, 또는 파티션 등을 설치.

다. 하나의 테이블을 6인 이하로 이용.

라. 테이블 간 이동을 하지 않는다.

또한, 동거 가족 등의 이용에 대해서는, 인원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시간은 복수의 점포를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합계 3시간을 한도로 할 것.

(3) 주고쿠·시코쿠 지역 이외의 현 외부 사람과의 식사는, 현 내외를 막론하고, 삼갈 것.

또한, 「접대를 동반하는 음식점」을 포함하여, 노래방 기계를 이용할 수 있는 점포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마이크, 리모컨 등의 소독, 노래를 부를 시에는 충분한 거리를 확보할 것.

## 6. 백신 추가접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중증화나 발병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신속한 백신 추가접종을 추진하고, 접종을 희망하는 모든 사람이 추가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시정촌은 체제 확보에 힘쓸 것.

7. 후생노동성이 제공하고 있는 접촉 확인 앱(COCOA)을 감염 확대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설치하여 활용할 것.

8. 사업소에서는 재택근무(텔레워크), 시차출근, 자전거 통근 등, 사람과의 접촉을 줄이는 대책을 실시할 것.

9. 감염자와 관계자 등에 대하여 인터넷이나 SNS에서 비방 중상, 소문 등은 엄중히 삼가며, 현과 시정촌 등의 공적 기관이 발신하는 정보에 근거하여, 인권을 배려하는 냉정한 행동을 취할 것.

또한, 백신을 접종할 수 없는 사람을 포함하여,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비방 중상 및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않을 것.